

영광 칠산 해역에 대해 종자 방류

고소득 품종 어린 대하 826만미 추가 방류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

영광군은 지난 18일 영광군 칠산해역에 지역어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 대하(전장 1.2cm이상) 826만미를 추가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한 대하는 생존률이 높고 방류 후 연안에서 멀리 이동하지 않는 정착성 어류로 방류 효과가 매우 높으며, 올 가을에는 체장 15~20cm, 체중 60g 내외의 상품가치가 있는 크기로 성장하여 영광군 해역의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방류에 참여한 지역 어업

인들은 "대하 어황이 좋은 것은 영광군이 지속적으로 방류를 실시한 결과로 방류를 실시한 해와 실시하지 않은 해의 어황을 비교해 보면 어획량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며 대하의 지속적인 방류를 건의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지난 5월 12일 어린 대하 715만미 방류 후 이번에 826만미를 추가 방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업인에게 직접 소득으로 연결되는 품종을 확대 방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7~8월에는 연산



함평군 해역에 어린 보리새우를 방류할 예정으로 올 가을철에는 보리새우와 더불어 대하 등의 새우류의

어획량 증가로 어가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서희권 기자

목포시, 7월3일부터 車종합검사로 전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적용

목포시는 다음 달 3일부터 자동차 정기검사가 종합검사(정밀검사)로 변경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4월 3일 시행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상 대기관리권역 포함에 따른 것으로, 목포는 여수·순천·나주·광양·영암 등과 함께 자동차 종합검사 신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

종합검사는 기존 정기검사에 실제 도로주행 상태를 반영한 부하검사 방법 등의 정밀검사를

추기해 실제 주행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검사한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하며, 교통안전공단 목포검사소 또는 관내 종합검사지정 정비업체에서 받을 수 있다.

단, 기존 자동차 정기검사는 1급 공업사면 모두 가능했지만, 종합검사는 설비가 갖춰진 지정업체만 가능하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김정환 기자

목포에서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 열려

지난 18일 목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동신문고'가 진행됐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각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해주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상담서비스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목포수산물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이날 이동신문고에서 조사관들은 고용노동, 환경, 주택건축, 교통도로, 사회복지, 생활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35건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영암 지역 특산물 활용

대표 쌀빵 2종 명칭 공모

영암군이 지역 우수특산물 소비 확대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암 대표 쌀빵(2종)의 명칭을 오는 30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월 초 무화과와 고구마를 활용한 지역대표 쌀빵 2종에 대한 상품개발 용역에 착수한 후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쳐 지역주민과 제과점 관계자를 대상으로 레시피 전수교육까지 마친 상태이며 참여한 관계자들로부터 맛·식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무화과 모양 쌀빵과 고구마 타르트 쌀빵은 우선 관내 제과점에서 판매될 예정이며, 소비자들에게 색다른 경험과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한 체험학습도 진행 할 계획이다.

'영암 대표 쌀빵(2종) 명칭 공모'는 오는 전 국민 대상으로 30일까지 이루어지며 당선작은 7.31일 영암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종류별 당선작 2건, 차선작 2건 총 4명을 선정하고, 상금은 당선작 각 20만원, 차선작 각 10만원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지역 우수특산물을 활용한 무화과 쌀빵과 고구마 쌀빵의 상품화를 통해 영암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영암의 새로운 대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대를 해 본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함평군, '공유누리' 통해 공공시설 33곳 개방

함평군은 통합포털 '공유누리'를 통해 군이 보유한 33개 공공시설을 개방·공유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유누리는 행정안전부가 정부혁신 및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조달청과 협업체 구축한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통합포털이다.

지난해 6월 사업에 착수해 올해 3월 개통됐으며, 공공기관(중앙·지자체)이 보유한 사무용 시설과 물품 등을 국민 누구나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도입

됐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유자원은 일반 국민이 직접 전화로 신청한 뒤 담당자 승인을 거쳐 이용이 가능했다.

필요한 자원 정보도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직접 검색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공유누리가 구축되면서 전국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개방자원을 통합포털(www.eshare.go.kr) 한 곳에서 검색부터 사용 예약까지 할 수 있게 됐다.

함평군도 군이 보유한 총 33개 공공자원을 이번에 공유누리에 등록, 국민 누구나 지역 공공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가능케 했다.

군이 등록한 주요 개방시설은 군립도서관, 군립미술관, 읍면사무회 회의실, 공용주차장 등이다.

앞으로 군은 신규 공공자원을 공유누리에 지속 확대 등록해 군민이 더욱 편리하게 지역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함평=김광춘 기자

'2020 무안군 여름밤 감성 버스킹' 운영

거리두기 문화공연

무안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을 위해 찾아 가는 버스킹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공연은 6월 19일부터 8월 21일까지 두 달간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10회에 걸쳐 삼향읍 남약중앙공원 일원에서 가요, 클래식, 재즈, 통기타, 댄스, 마술쇼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장에서는 코로나19 방역수

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거리두기와 손소독제를 비치해 감염 예방을 위해 대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잊따른 축제 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예술가들에게는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군민들에게는 활력을 주고 힐링의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추진하게 됐다"라며, "다양한 거리공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신안군,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계획 보고회

상반기 마무리 신속집행

신안군은 지난 18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행안부 상반기 신속집행 평가 대비 '상반기 재정집행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부군수 주재로 6월말 목표액 미달성 중인 담당별로 미집행 사유 분석과 소비분야 집행률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신안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 상반기 신속집행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정부 신속집행 제

도인 선구매·선결제, 개산금 지급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신속집행 포함 2분기 소비·투자부문 사업 목표액 3,199억을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코로나19에 따른 장기간 경기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소비·투자분야에 적극적 대처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부군수를 중심으로 전 직원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